

무선 데이터 통신) 태그가 삽입된 포스터를 제작·게시해 시민들이 포스터에 휴대폰을 가까이 대기만 해도 바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도 도입했다.

접수된 제안사업은 5월부터 시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민, 시민단체,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전달되며, 위원회에서 심의 후 9월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을 통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반영된다.

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하는 ‘참여형(240억)’, 민·관이 함께 발굴하는 ‘협치형(200억)’, 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인 ‘주민자치회형(60억)’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.

접수는 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incheon.go.kr/budget/BUD020101>)를 통해 연중 받고 있으나, 올해 4월 30일까지 신청 건에 한해서만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한다. 기한을 넘겨 접수된 제안은 2024년 예산으로 심의한다.

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“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만드는 것인 만큼, 세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여형 사업이 다채롭게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” 고 말했다.

한편, 시는 그간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,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·감지기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, 참여형 사업 심의과정에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.

[사진]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홍보 포스터

 인천광역시

알고 계신가요?

“시민의 제안이 모여 주민참여예산이 됩니다.”

(일상생활 속, 인천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)

스마트폰
카메라를 켜고
QR코드에 대보세요 ♥



QR코드 스캔

NFC 태그

스마트폰을
여기에
바로 대보세요 ♥

인천시청 홈페이지

소통참여

주민참여예산

'제안하기'

2022년 4월 30일까지 소중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!



사·민·관·합·동
인천주민참여예산

문의 인천시 예산담당관 ☎ 032-440-2244

